

제 1 주제

충남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¹⁾

임 선 빈

(한국학중앙연구원)

1) 1) 이 글은 충남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워크숍에서 토론하기 위한 발제문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발표한 필자의 글과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1. 충남의 역사지리적 특징

1) ‘忠淸道’ 명칭의 유래와 충남의 등장

- 충청도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忠州와 淸州의 머리글자 조합)
- 충청도의 권역은 조선시대에 와서 의미를 지니기 시작 : 충주권, 청주권, 공주권, 홍주권
- 충북지역은 삼국시대 백제의 변경지역으로 일시적으로 고구려 신라의 영역에도 편입 / 통일신라의 중원경, 서원경 등 → 중원문화권(백제문화권은 충북과는 관련 적음)
- 충남의 등장은 1896년 : 홍주권, 공주권, 청주권의 일부 (37개군) / 충북은 18개군 → 권역에 따른 지역정서의 차이 현존

2) 홍주권의 ‘내포’

- 內浦라는 지명은 고려말부터 전라도의 조운로와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
- 조선시대 내포의 지역범위는 ① 내포 중의 내포라고 할 수 있는 삼교천 유역, ②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언급한 가야산 주위의 10여 고을, ③ 조선시대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던 홍주목과 관련한 홍주진관 소관의 20여 고을
- 내포의 지리적 특징 : 非山非野, 금북정맥, 중심산은 伽倻山(불교적 이미지), 포구발달, 수로이용
-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마애불, 안흥과 당진항),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잦은 외국세력의 침투(여말선초 왜구, 조선후기 이양선 출몰)
- 내포문화의 특징 : 해양성, 개방성, 선진성

3) 공주권의 ‘금강’

- 금강은 전북, 충북, 충남(대전)을 흐르는 남한에서 세 번째 큰 강, 백제의 도성(웅진, 사비), 충청 내륙의 젖줄
- 금강의 명칭 변천 : 熊津(江), 泗沘(河), 白江[西], 熊川(河), 公州江 → 錦江(조선후기)
- 금강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충청도의 상징으로 사용 : 錦營(공주의 충청감영), 錦伯(충청도관찰사), 湖西(금강의 기준으로 한 충청도의 별칭), 錦南·錦北正脈
- 충청 내륙의 중심산은 계룡산(금남정맥) : 鷄山, 鷄藍山, 鷄龍山 / 백제의 東嶽(? 靑), 통일신라의 西嶽(白), 조선말기의 中嶽(黃)

4) 기타지역

- 천안지역은 청주권에 해당 : 공주권, 홍주권과 또 다른 문화권
- 금산지역은 조선시대 전라도에 해당

2. 충남 전통문화의 상징

1) 찬란한 백제문화

- 서해안의 ‘바닷길’을 활용한 중국의 선진문화 수용 및 중국·일본과의 문물교류 → 백제문화의 선진성, 개방성, 국제성
-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의 불교문화유산 : 태안마애삼존불, 서산마애삼존불, 예산 화전리사면석불 등 → ‘백제의 미소’
- 금강유역 백제왕도의 찬란한 문화유산 : 무령왕릉, 백제금동대향로, 정림사지 5층석탑 등 → 우아·세련·섬세함
- 백제 부흥의 염원과 실패 : 부흥운동, 김현창의 난, 견훤의 후백제 → 백제 계승의식 단절 (조선, 신라, 고구려·고려, 삼한 등의 역사적 계승의식과 대비)

2) 강건한 선비문화

- 충청도는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 → 원래 충청도명은 충절과 무관하지만, 충절의 고장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음.
- 선비(순수한 우리말)의 개념 변화 : 조선초기에는 유학을 공부하여 관리가 되려는 사람이나 관리가 된 사람 / 조선후기에는 선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벼슬하지 못한 이들이 선비의 대중을 이루게 되면서, 관직에 관계없이 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 / 조선말기 이후의 선비상은 벼슬하지 못한 자를 지칭 → 과거제도 폐지(1894), 근대 교육제도 도입, 일제 식민지 전략으로 더 이상 선비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게 됨. 일제시대에 식민지 관료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학문을 공부해야만 한 반면, 참된 선비는 식민지 관료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여 벼슬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포의(布衣)로 남게 되면서, 선비는 ‘학식이 있되 벼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굳어짐(선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들은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지배층에 비해 건장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 (나약한 현대인의 귀감)
- 조선시대 충청도는 선비문화의 중심지 : 조선 초기 절의 인물(사육신 가운데 이개, 성삼문, 박팽년, 절재 김종서 등),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중심인물 다수 배출(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송애 김경여, 시남 유계, 미촌 윤선거 등)

- 17세기 알려진 山林 절대다수가 충청도인 : 38명 가운데 충청도 17명, 경기 7명, 경상도 5명, 전라도·강원도 각각 2명, 평안도 1명, 미상 4명
- 조선시대 유학계의 3대논쟁 가운데 예론, 인물성동이논쟁 등이 충청도 선비들을 중심으로 전개
- 조선시대 강건(剛健)한 선비문화의 전통은 근대에 이르러 항일 구국운동으로 계승 : 민종식(閔宗植, 1861~1917), 이남규(李南圭, 1855~1907), 김복한(金福漢, 1860~1924),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이종일(李鍾一, 1858~1925), 유관순(柳寬順, 1902~1920?), 이동녕(李東寧, 1869~1940), 김좌진(金佐鎭, 1889~1930),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윤봉길(尹奉吉, 1908~1932) 등

3. 충남의 정체성 발견과 충남정신

1) 충남정신의 설정과 발양과정

- 충청남도는 1989년부터 충남의 5대정신을 설정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조명 :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 → 애항심, 정의실현, 청렴결백, 질서의식, 협동심

<표> 충남 5대정신과 근거로 제시된 사례(『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에 의함)

5대정신	충남의 사례(인물)	현대적 조명
충효정신	<p>[백제] 海東曾子의 칭송을 받은 義慈王(?~660)의 효행 / 죽임에 임하여도上奏한 咸忠(?~656)의 충절 / 나당연합군방어의 양책을 말한 興首(?~660)의 충성 / 모친의 병치료에 자신의 살을 뱀 向德(신라 경덕왕대)의 효성</p> <p>[고려] 부원수인 姜民瞻(963~1021)의 글안군 패퇴 / 양계병마사를 여섯 번이나 역임한 徐恭(?~1171)의 효행 / 지혈로써 모친을 소생시킨 韓轍(1156~1241)의 효행 / 원나라 惠宗을 감탄시킨 李穀(1298~1351)의 충정 / 홍건적의 침입을 미리 상서한 普愚(1301~1382)의 선견지명 / 辛旽을 내몰도록 직언한 張夏(1326~1399)의 충성 / 권신들을 탄핵하여 10년간 유배생활을 한 李詹(1345~1405)의 강직,</p> <p>[조선] 淸愼勤 등 當官之法을 실천한 孟思誠(1360~1438)의 충성과 효행 / 국난에 나라를 구한 李舜臣(1545~1598)의 위대한 충효정신 /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전투를 총지휘한 金時敏(1554~1592)의 지략 / 이순신을 도와서 왜선을 대파한 李億祺(1561~1597)의 충의정신 / 국난극복에 공을 세운 鄭忠信(1576~1636)의 지모와 용기 / 주자학의 거유 宋時烈(1607~1689)의 春秋大義 정신 / 「구운몽」의 작가인 유복자 金萬重(1637~1692)의 효심</p> <p>[항일투쟁] 문신이며 학자인 崔益鉉(1833~1906)의 의병운동과 대의정신 / 홍주의병들의 충의정신 / 임시정부에서 조국 광복에 힘쓴 李東寧(1869~1940)의 충의정신</p>	애향심
절의정신	<p>[백제] 처자를 베고 출전한 階伯(?~660)의 비장한 충의정신 / 백제의 부흥운동에 전력한 福信(?~663)의 충성 / 정절을 지킨 都彌의 아내(백제 개루왕대)의 節行</p> <p>[고려] 왜구·홍건적 등의 토벌에 대공을 세운 崔瑩(1316~1388)의 순절 / 사직을 편안케한 柳淑(?~1368)의 충직 /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친 李穡(1328~1396)의 높은 지조/ 불사이군을 몸소 실천하여 타살된 李種德(고려말)의 충의정신 / 관직을 사퇴하고 학행과 후진교육에 힘쓴 吉再(1353~1419)의 절개</p> <p>[조선] 야인들을 격퇴하여 6진을 개척한 金宗瑞(1390~1453)의 지용 / 단종복위를 도모한 朴彭年(1417~1456)의 절의 / 충절로써 비운을 겪은 成三問(1418~1456)의 절의정신 / 700의병과 함께 분전한 趙憲(1544~1592)과 靈圭(?~1592)의 精忠과 大節</p> <p>[조국광복정신] 청산리전투를 총지휘하여 대승을 거둔 金佐鎭(1889~1930)의 애국정신 / 독립만세를 외친 순국처녀 柳寬順(1904~1920)의 애국정신 / 국수 왜적들을 토벌한 尹奉吉(1908~1932)의 충의정신</p>	정의실현
선비정신	<p>역학의 대가인 李之函(1517~1578)의 安貧樂道 / 諸子百家의 進修踐履 이론에 통달한 徐起(1523~1591)의 예지 / 암행어사로써 탐관오리를 숙청한 朴文秀(1691~1756)의 기민구휼 / 秋史體를 대성한 명필 金正喜(1786~1856)의 탐구정신 / 대중계몽에 헌신한 李商在(1850~1929)의 신의 / 33인의 민족대표로 독립을 선언한 韓龍雲(1879~1944)의 지조</p>	청렴결백
예의정신	<p>신분이 미천하나 세인의 존경을 받은 宋翼弼(1534~1599)의 학문과 인격 / 예학의 태두 金長生(1548~1631)의 덕행 / 실지생활에 알맞게 실천한 金集(1574~1656)의 예의정신/ 誤禮殺人의 불가함을 상소한 權譔(1604~1672)의 의리정신 / 자기를 스스로 탄핵한 도학군자 宋浚吉(1606~1672)의 예의정신 / 遺疏와 遺書를 남긴 우국지사 宋秉璫(1836~1905)의 의리정신</p>	절서의식
개척정신	<p>경제치용의 대가 梁誠之(1415~1482)의 실천철학 / 지구의 自轉說을 설파한 洪大容(1731~1783)의 혁신적 사회개혁사상 / 향약과 지역개발정신 / 25세에 순교한 한국 최초의 신부 金大建(1822~1846)의 전교 / 혁신적 정열을 가진 선각자 金玉均(1851~1894)의 개화의지 / 독립문 건립을 주도한 徐載弼(1866~1951)의 조국애 / 상록수정신과 계몽운동 / 애향정신과 새마을운동</p>	협동심

○ 5대정신 가운데 선비정신이 다른 4대정신과 동일한 위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없음 : 선비가 유학에서 일컫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할 때, 다른 4대정신을 모두 지닌 인간이어야 참된 선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충남정신으로 청명정신과 조화정신을 제언

2) ‘청명정신’과 ‘조화정신’

○ 清明精神의 ‘청명’은 충청도를 상징해 온 ‘淸風明月’의 준말이다. ‘청풍명월’이 자연을 설명한 용어인데 여기에서 정신을 담보하는 인위적인 용어로, ‘청풍’과 ‘명월’의 머리글자인 ‘청’과 ‘명’을 따서 造語한 것이다. 충남 5대정신이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으로 정립되었는데, 이 가운데 ‘선비정신’은 나머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흔히 지적되어 왔다. 충효, 절의, 예의, 개척은 과거 동양의 바람직한 인간상인 ‘선비’의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과거의 선비상에서 느낄 수 있는 ‘淸廉하고 明哲(혹은 賢明, 分明, 高明)한 선비’와 ‘청명정신’을 쉽게 연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청명정신’을 다가오는 미래의 지도자상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

‘청명정신’, ‘청명운동’, ‘청명사회운동’, ‘청명정신운동’ 등의 표현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인간상(人間像 : 충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 혹은 淸白吏<사실 청백리는 봉건시대의 표현>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을 ‘淸明人’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을 것이다. ‘淸明’을 우리말로 풀어 쓸 때에는 ‘맑고 밝은’이라는 의미이니, ‘깨끗한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자연을 상징하는 ‘청풍명월’에서 ‘청명’을 ‘맑고 밝은 환경보전’으로 연계시킬 수도 있으며, 도민에게는 ‘청명’이 ‘미래의 맑고 밝게 웃는 세상’, ‘맑고 밝은 세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정계·경제계·관계 할 것 없이 모두가 보다 투명한 사회,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調和精神도 충남을 대표할 만한 정신이다(조화정신은 1996년에 개최된 충남정신발양 심포지엄에서 황의동 교수에 의해 제시된 바 있음). 충청도는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산과 강과 평야가 적당히 펼쳐져 있으며,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적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옛부터 충청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일컫게 되었고,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충청인의 기질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충청인은 비교적 온순하다는 평을 듣는다. 부딪쳐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순응하는데 익숙하다. 자기 주장을 고집해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얘기를 듣고 이해해 주는 편이다. 이쪽 저쪽의 싸움 편에 서기보다는 싸움을 말려 화해를 도모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무슨 일에 곧장 행동하기 보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신중한 편이다. 자기의 표현을 드러내기 보다는 내면적으로 소화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충청인은 전라도, 경상도 어느 지역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은 충청인의 기질적 특성에 너그러움과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충청의 그릇은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랑색을 다 담을 수 있고, 전라도, 경상도를 모

두 수용할 수 있으며, 진보와 보수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다. 이는 피상적으로 보면 충남정신의 커다란 단점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참으로 훌륭한 장점이다. 충청인은 마음을 비우고 승부욕을 떠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편 저편, 이쪽 저쪽의 중간에서 양편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는 중용철학에서 일컫는 ‘時中의 道’를 실천하는 길이다.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지역감정·지역갈등을 해소하고, 21세기에 분단된 조국의 남북통일을 달성하며, 동양의 정신문화와 서양의 물질문명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정신이다.

